경인년 광주에선 어떤 공연 만날까

이문세·박진영·이미자·이승철 등 릴레이 콘서트

1월 뮤지컬 '헤드윅'·2월 '명성황후' 벌써부터 기대

2010년에는 어떤 공연들이 관객들을 감동시킬까.

광주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광주문예회관 대관일정을 중심으로 2010년 대표 공연을 소개한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콘서트

새해 첫 콘서트의 주인공은 최근 새로운 미니앨범을 내고 활동을 시작한 박진영이다. 박진영은 '나쁜파티-Heartless, 이제 사랑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는 1월 10일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연다. 1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는 성인 콘서트로 히트곡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뮤지컬 '헤드윅'

1월 29일과 30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는 이문세 콘서트 '붉은 노을'이 열린다.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전국 순회공연중인 '붉은 노을'은 지금까지 6만여명이 다녀간 히트상품이다.

이문세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과 어쿠스틱의 담백함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에서 다채로운 히트곡을 들려준다.

그밖에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는 2월 21일 광주문예회관 무대에 올라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등 주옥같은 히트곡을 들려주며 '콘서트 황제' 이승철은 2월 27일 광주 관객들을 만나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

▲뮤지컬

조승우·오만석 등 수많은 뮤지컬 스타들이 출연했던 뮤지컬 '헤드윅'은 1월 23~24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

최근 1천회 공연 기록을 세운 '헤드윅'은 동독 출신의 트랜스젠더 록가수 헤드윅이 펼치는 록 콘서트 형식의 자전적 이야기로,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이번 광주 무대에는 가수 윤도현과 최재웅이 새롭게 헤드윅으로 출연하고, 기존에 헤드윅으로 자주 무대에 섰던 송용진이 합세했다.

국내 뮤지컬계의 신화로 꼽히는 '명성황후'(2월 6~7일)도 오랜만에 광주를 찾아온다. 14년 전 첫 공연을 가졌던 '명성황후'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연돼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다.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가 인상적인 '시카고'는 3월 뮤지컬 팬들을 찾아온다. 신시뮤지컬컴퍼니가 제작한 '2010판 시카고'에는 인순이·최정원·옥주현·남경주 등 스타급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이문세

또 '노트르담 드 파리'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뮤지컬로 인기를 모았던 '로미오와 줄리엣' 한국어 버전도 3월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그밖에 '헤어스프레이'도 광주 공연을 준비중이다.

아쉽게도 클래식 분야의 경우 눈에 띄는 공연이 없으며 이사오 사사키, 유키 구라모토 등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들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 105명 참가한 '牛범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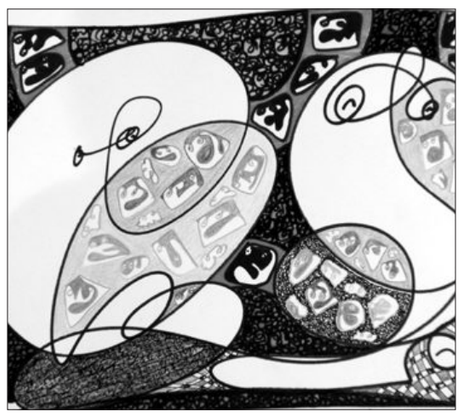
소띠해 추억 호랑이해 설레임

우제길미술관 1월 14일까지

우제길미술관은 내년 1월14일까지 다사다난했던 2009년 소띠해를 추억하고, 호랑이해를 맞는 '牛범지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동호, 김영희, 김용관, 박구환, 박민경, 박병주, 정우범, 정혜성, 조성숙, 조영하, 조은애, 조환채, 진경우, 채종기, 한미경, 한예형, 한지희, 한희원, 황지영씨 등 10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인간 사이의 소통과 이해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인 '牛범지대'는 소를 사랑한 호랑이가 매일 먹이를 잡아다 주지만 초식동물인 소는 그 먹이를 먹지 못했다는 옛 이야기에서 따왔다.

임병중씨는 고대 벽화에서 느낄 수 있는 낡고, 오래된 느낌을 살린 판화 작품을 선보이고, 김유홍씨는 기하학적인 기호로 사물의 형상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224-6601.



김유홍 작 '설레임'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열쇠로 들여다 본 요지경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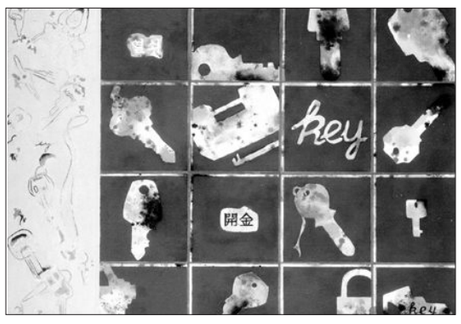
김선주전… 오늘부터 무등갤러리

평면, 입체, 설치 등 다양한 현대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서양화가 김선주씨가 31일~2010년 1월 6일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열쇠'를 주제로 청색, 흰색, 적색, 흑색, 황색 등 오방색으로 풀어낸 다양한 회화와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열쇠는 닫혀져 있는 곳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을 상징한다. 자물쇠에 갇혀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커다란 열쇠로 표현하고 있다.

또 사물의 본질(자물쇠 안)은 사라지고, 대상(열쇠)만을 추종하는 현대인의 모습도 꼬집는다.



'열쇠-억압'

전남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6차례 개인전과 광주전남여류작가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에뽀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여성발전센터 제 1기 교육생 모집

광주여성발전센터(소장 최연주)는 2010 제 1기 여성발전센터 정기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취업·창업(한복기능사, 반찬가게 창업, 와인 소믈리에, 한지공예, 리본공예, 인터넷 쇼핑몰, 의류 리폼 창업 등 19개), 언어·취미·교양(생활요가, 신기한 마술나라, 즐거운 기타 교실, 영어·중국어·일본어 회화) 등 29개 과목으로 5개월과 3개월 두 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가 신청가능하며 접수는 내년 1월 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는다.

수강료는 월 1만원(교재비·재료비 제외)이다. 문의 062-613-7980~6. /김미은기자 mekim@

백남준 '위대한 작고 현대미술 작가'로

獨 '마나거마가진' 선정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사진〉이 최근 독일 잡지인 '마나거마가진'에 의해 위대한 작고 현대미술 작가 10명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이 잡지는 현대미술 작가 중 위대한 작고 작가 1위에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1928~1987)을 선정했으며 이어 독일의 행위예술가 요제프 보이스(1921~1986. 2위), 미국의 솔 르윗(1928~ 2007.5위) 등에 이어 백남준을 10위로 선정, 발표했다.

한편, 이 잡지는 1970년 이후 40년간 활동을 근거로 해 위대한 생존 작가 1위로 독일 작가 게르하르트 리히터를 선정했다.

/연합뉴스

동판 오리고 쪼고 붙여 만든 인물상

임정임전… 금호갤러리

연탄재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를 혼합한 독특한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각가 임정임씨가 내년 1월11일까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임씨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를 주제로 테라코타와 동판, FRP 등으로 인물을 표현한 다양한 조각품을 선보인다.

동판을 오리고, 쪼고, 붙여 거친 질감의 인물상을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해 현대인의 고독을 형상화했다. 이들 작품 속 인물들은 어딘가 어눌해 보인다. 보이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 느낀 대로 창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

'흔들리며'

목포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한 뒤 몽고·한국미협 교류전, 의식의 전환전 등의 단체전에 출품했다. 문의 062-360-8432 /오광록기자 kroh@